

■ 대학생 아르바이트 '현장실습' 인기 몰이

용돈 벌고 학점 따고 '일석이조'



여름방학을 맞아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일하며 적성을 탐색하고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이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대생들이 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르바이트하면서 용돈도 벌고, 학점도 따니까." 대학생들의 방학 아르바이트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과외나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주종을 이뤘다면, 최근에는 전공 분야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직접 일하며 적성을 탐색하고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에 학생들이 몰리고

전대 214명 41개 업체
조대 24명 4개업체서
최대 30학점 취득하고
월 50만~70만원 수익

있다. 전남대의 경우 지난해 여름부터 현장실습을 전 학과로 확대하고, 계절제 학기제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올 여름방학 기간 중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214명이며, 전국 60개 업체 및 기관에서 파견돼 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는 130여 명이 41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공 분야 업체에 근무하면서 특정 업무에 대한 자신의 적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며, 실습 기간에 따라 2학점(6주)에서 5학점(8주), 15학점(24주), 최대 30학점(48주)을 인정받는다.

대학으로부터는 매월 10만~2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실습기관에 따라 노동청으로부터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많은 업체가 10만~20만원을 아르바이트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아르바이트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에서 배웠던 이론을 실무로 풀어가는데 있어서 깨닫는 즐거움이 크다"면서 "남보다 사회를 좀 더 빨리 경험한 만큼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됐고, 시야를 넓히는 데도 도움을 받았다"고 크게 만족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현장실습 교과목이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아르바이트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학생들이 방향을 단순히 수업이 없는 기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나 자신에게 부족한 학업을 보충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초보 골퍼 공에 부상 본인도 40% 책임

골프장에서 '초보 골퍼' 앞에 서 있다 공에 맞아 부상했다면 본인도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균 타수가 100타가 넘는 골퍼 초보자인 김모씨는 2003년 4월 비슷한 실력의 지인 3명과 함께 강원도 횡성군의 공군 모부대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들의 보조를 받으며 골프를 쳤으며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약 325m 길이의 2번 홀로, 이 곳은 오른쪽으로 급격히 휘어지는 심한 오르막에 페어웨이 오른쪽에는 숲이 울창한 산으로 연결돼 있었고 김씨 등이 친 공은 모두 그 린을 100여m 앞둔 오른쪽 러프 부근에 떨어졌다.

지인 중 1명이 페어웨이 오른쪽 러프 부근에서 다음 샷을 준비했고 김씨는 이 지점에서부터 왼쪽으로 약 10~20m, 앞쪽으로 3~4m 되는 곳에서 캐디와 함께 서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지인이 친 공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면서 왼쪽 대각선 앞에 서 있던 김씨의 오른쪽 눈을 강타했다.

김씨는 눈 유리체에서 피가 나고 수정체가 탈구되자 캐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를 하지 않았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김수형 부장판사)는 7일 김씨측이 캐디들을 고용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골프장을 관리하는 부대는 고용관계나 근무 방식을 비취할 때 캐디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캐디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도 '골프 초보자'인 지인들이 친 공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스스로 사고 피해 확대에 기여한 원고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군용 트럭 3대 연쇄 충돌 훈련기던 군인 53명 부상

7일 오전 9시에 광주시 동구 산수동 제2순환도로 산수터널 입구 1km 앞에서 담양 황금박쥐부대 소속 군용 트럭 3대가 연달아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군용 트럭에 타고 있던 11공수부대 소속 박모(21) 일병 등 53명이 손과 팔 등에 가벼운 찰과상 등을 입고 국군 종합병원 등 인근 병원 5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장병들은 이날 오전 해상 침투훈련을 위해 차량 20여 대에 탑승, 해남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는 터널 앞쪽에서 17번째 차량이 급정차하는 바람에 뒤따라던 차량 2대가 잇따라 추돌하면서 일어났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남대 부부교수 미국서 숨져

귀국길 교통사고...자녀 2명도 중상 미국 현지인들 자녀 돕기운동 펼쳐

전남대에 재직 중인 40대 부부 교수가 미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7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남상재(49)교수와 부인 수의과대학 안미라(47)교수가 지난 3일 자녀 2명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 미국 서부 몬테나 주(州) 191번 간선도로를 달리던 도중 트레일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앞좌석에 타고 있던 남 교수 부부가 현장에서 숨지고, 딸 희경(14)양과 아들 석우(11)군이 다쳐 몬테나 주 보즈만(Bozeman)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남 교수 가족은 이날 오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미니밴을 빌려 타고 시애틀 공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남 교수는 지난달 31일자로 미국 노스

웨스턴 대학 교환교수 임기(2년)가 끝나는 부인과 현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미국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남 교수의 동생 상길(47)씨는 "형 부부가 출국 몇 시간 앞두고 이 같은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면서 "중상을 입은 아이들은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형수의 이모가 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학 측은 시애틀 총영사관에 사고 수습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남 교수 부부는 연구 실적이나 대내외 활동, 학생 신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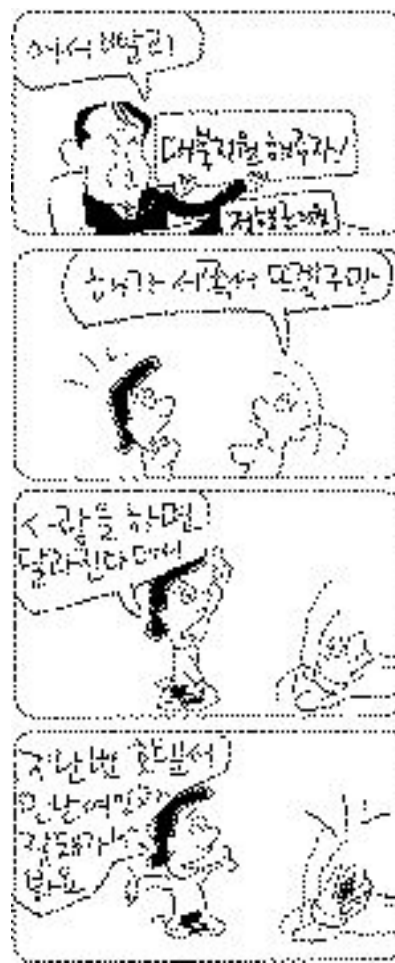
<故 남상재 교수> <故 안미라 교수>

면에서 두루 높은 평가를 받아온 촉망받은 학자였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미국 현지 일간지인 '보즈만 데일리 크로니클'(bozemandaily-chronicle)도 남 교수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과 살아남은 아이들의 근황을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하는 등 관심을 표하고 있다. 또 은행(First Interstate Bank)에 계좌를 개설, 남 교수 자녀를 돕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6901) 김철두



연제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지 3534부지
문의 (062)366-4220

종합병원 화재 환자 대피소등

7일 자정께 목포시 석현동 J 종합병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 환자 50여명과 보호자 등 200여명이 30여분 동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경비원이 4년간 회사 물품 훔쳐

○~자신이 일하는 식품제조 회사 창고에서 '야금야금' 물품을 훔쳤던 경비원이 4년 만에 달미.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2002년부터 광산구 안창동 K식품 창고에서 100여 차례에 걸쳐 음료수 100여 박스와 고물 등(시가 500여만원 상당)을 훔친 이 회사 경비원 은모(70)씨 등 2명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

○~은씨 등은 휴일에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 물건을 빼돌려왔는데, 재고량이 맞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회사 측이 몰래 설치한 CCTV에 의해 들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가족의 건강을 위한
세심함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

용봉동 M타워 분양 및 임대

대우
부동산
062-366-4220